

“檢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대출규제는 맛보기”

李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확인
“3대 특검, 민주주의 재건 핵심”
“공급확대 등 부동산 대책 많아”
“미국 관세협상 어렵지만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소상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



광주 시민들과 열차 이용객들이 3일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쪽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편성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

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코리아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작심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번 대출규제

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사안 중 관심을 모았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상황)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 전략적·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李, 비교섭단체 5당 대표 오찬 회동

‘조국 사면’ 건의에 ‘즉답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 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야당 지도부로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고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노동자들의 경우 수형 실태에 대해 파악해볼 것을 지시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 등의 고용불안 문제나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당권 도전 박찬대, ‘호남 당원에게 듣는다’

5~9일 광주·전남북서 경정투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 대회를 앞두고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가운데, 박찬대(사진) 당 대표 후보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광주·전남·북을 찾아 당원들을 만난다.

3일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5일 전북과 전남 서부(나주문화예술회관, 오후 6시 30분) 당원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6일 전남 동부(여수시민회관, 오후 3시 30분) 당원 토크 콘서트, 7일 광주 기자회견, 8일 전북 경정 투어, 9일 전남 경정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호남살이’ 5일 동안 청년·의료·에너지·산업·교육 등 지역 핵심 공약을 재확인하고, 실행 전략을 논의한다.



광주에선 광주시 현안과 정부 인사 호남 추천 문제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다뤄진다. 전남에선 공공의료 인프라(국립의대, 트라우마센터 등) 구축과 해상풍력 기반 신산업 육성 현장등을 방문한다.

박 의원은 이번 호남 경정 투어에서 초광역 인프라 투자 확대, 국책사업 우선 배정, 지역인재 우선채용 확대, 정당 차원의 예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 당원 주권 정당의 확장을 위해 호남공약전담 최고위원을 지정해 분기별 이행 점검 보고를 체계화하고, 당 대표 직속 ‘호남특별위원회’ 설치해 지역 숙원 사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121분 회견’… 연단 없애고 질문자 추첨 ‘눈길’

타운홀미팅 형식… 격의 없이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행사장에 바닥과 단차를 둔 연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회견에 임했다.

격의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불과 1.5m가량이었다.

회견에는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의 좌석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둘러앉은 ‘타운홀 미팅’ 형태로 배치됐다.

연단을 철거하고, 기자들과 가까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회견을 진행한 것은 ‘탈 권위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역의 풀뿌리 언론인들도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

이재명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주요 내용

연말뉴스

민생·경제

민생회복에 전력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없음. 효과는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 많이 남아있음. 금융시장으로 투자 유도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 아끼지 않을 것

정치·사회

통합의 국정, 야당 자주 만나 뵈 생각. 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해 볼 것

3대 특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 핵심 역할

의정갈등, 신뢰 회복과 대화·타협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봄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음. 추석 전 열개 가능. 갈등·부작용 최소화 노력

외교

미국과의 관세협상, 쉽지 않지만 최선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와 협력 분야 분리. 서틀외교 통해 협력 확대

남북 간 대화·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 열 것

월’ 화면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실 기자단 간사의 질문과 자신이 현장에서 지목한 기자 2명의 질문에 답하며 질의응답을 시작했다.

이날 회견에선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해 눈길을 끌었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민생·경

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의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고 해당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질문자 즉석 추첨은 마치 미리 짠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약속 대련식’ 기자회견을 지양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등 13곳 전격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

자, 전날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삼부토건 최대주주였던 디와이디 사무실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과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수사망에서 제외돼 온 김 여사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인 셈이다.

연말뉴스